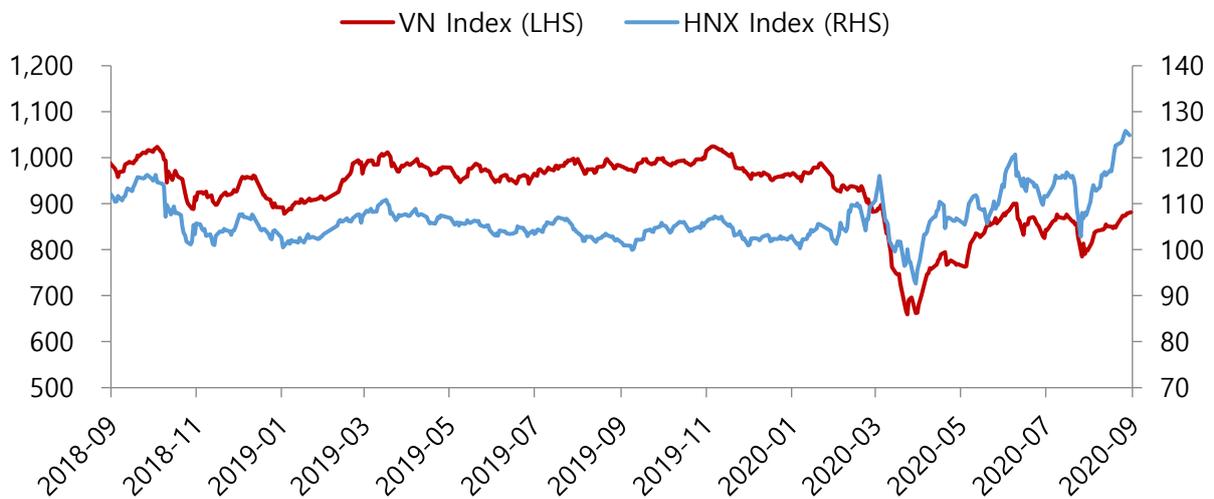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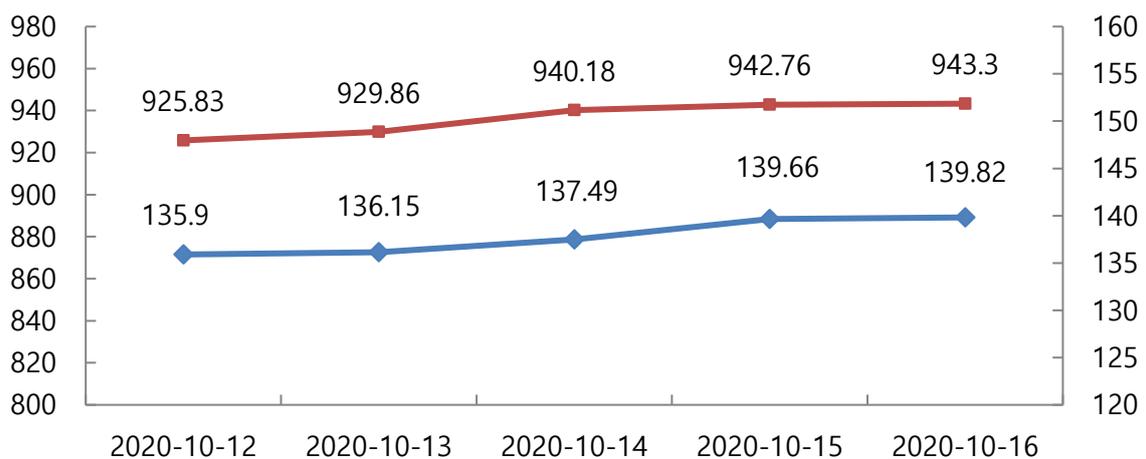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매도세에도 VN지수는 19.3p(2.09%), HNX지수는 2.91p(2.13%) 상승하며, 올해 2월초 수준을 되찾았다. 특히 VN지수는 5일 연속 상승하여, 주간 최고치는 946.23p에 달했다. 호치민 거래소와 하노이 거래소의 거래액은 각각 7.19%, 22.33% 감소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호아팻 그룹 올 3분기 세후이익 사상 최대

호아팻 그룹은 지난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2.7% 상승한 24.9 조동에 달하며, 3.78 조동의 세후이익을 남겼다. 해당 세후이익은 작년 동기의 약 2 배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9월까지 매출 65 조동, 세후이익 8.84 조동에 달해, 각각 작년대비 40%, 56% 증가하여 이미 2019년 수치를 초과했다. 제철, 농업, 부동산 분야가 매출에 크게 기여했는데, 특히 철강 생산량은 작년대비 약 2 배 증가하여 매출의 12%를 차지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무역규제에 걸린 120억달러의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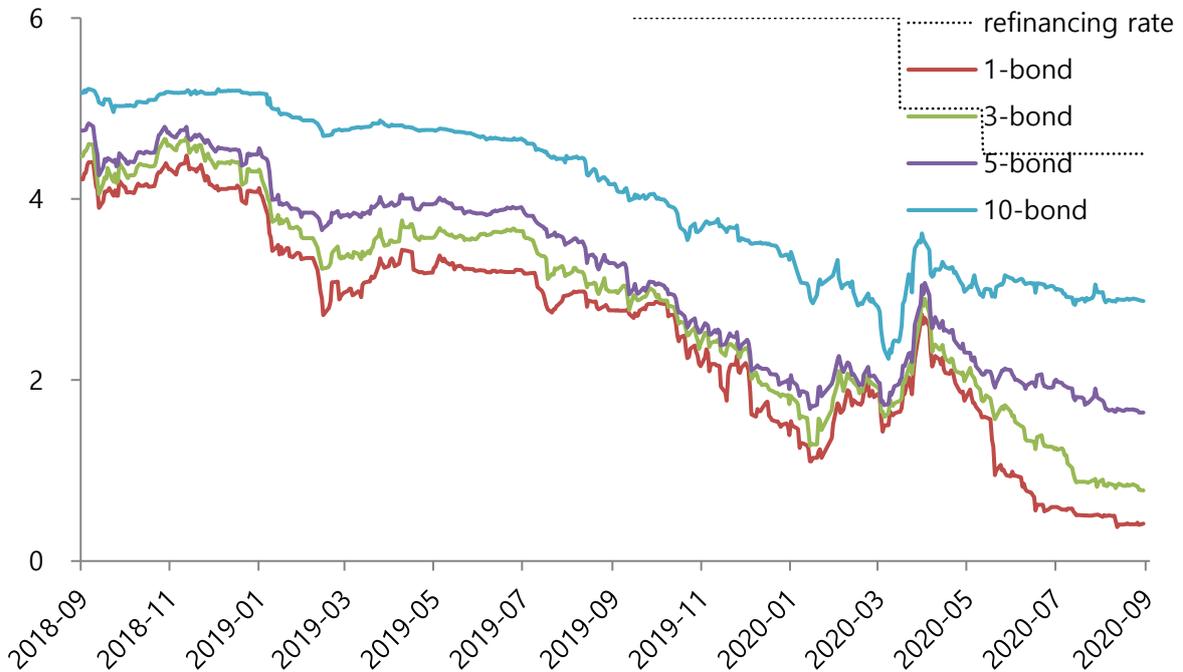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지금까지 120억달러 상당의 베트남 수출품이 타국의 무역규제에 영향을 받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해 200여건의 무역 위반이 제기된 상태이며, 해당 수출품들은 주로 금속(알루미늄, 철), 해산물(새우, 생선), 합판, 건설자재 및 화학물질이다. 주요 분쟁 제기국가는 미국, 인도, EU, 터키, 캐나다, 호주로, 전체 수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 베트남 GDP, 올해 싱가포르 추월 예정

IMF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예상 GDP는 3406억 달러로, 싱가포르를 1%폭으로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어 아세안 경제규모 4위에 오른다. 향후 5년간 연간 성장률이 6~7%로 기대되는 점에서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의 인당 GDP는 2.4% 오른 3497달러로, 아세안 6위에 올랐으며 2025년경 5212달러로 5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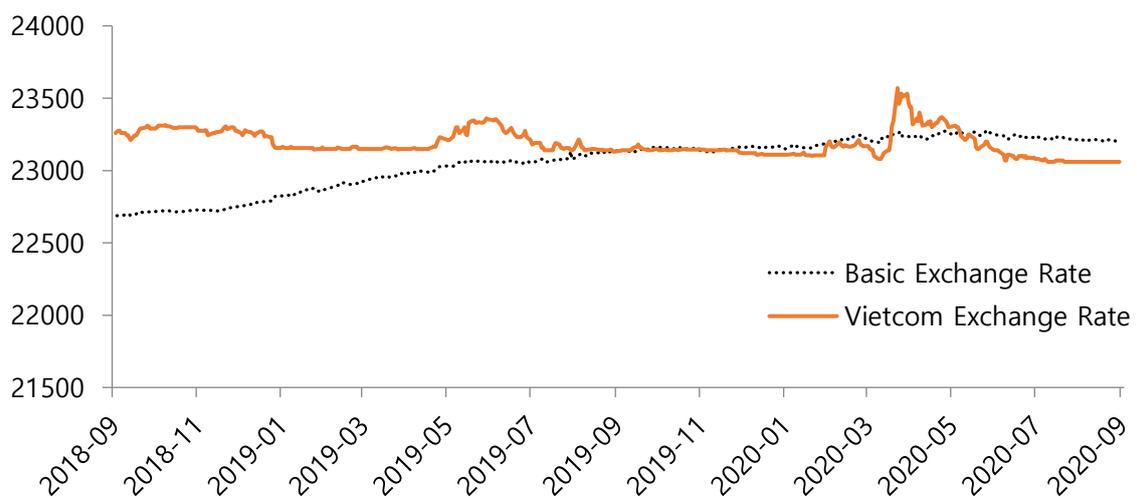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20-10-16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060	23,090	23,270



■ **대출증가세 둔화에 따라 예금이율 지속적 감소**

20여개 은행들은 이율을 이달 초 수준보다 0.5% 낮췄다. 베트남의 올해 1~9월까지 대출증가세는 5.12%에 불과하여 지난 3년간 연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지난 8월에 베트남중앙은행은 올해의 대출 증가율 목표를 14%에서 10.1%로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인 피치 솔루션은 제조업 분야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 받은 미국, 유럽과 연관이 깊은 점을 들어, 올해 베트남의 대출 증가율이 7%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 **수정 법령을 통한 은행주식배당 활성화**

국영은행에 대해 새 정부령이 발표되며 배당금으로 소비되는 현금이 절약된다. 국가 자본이 50%이상 투입된 시중은행은 새 법령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비엠티뱅크, 비엠킴뱅크, BIDV는 앞으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대신 이익을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베트남중앙은행(SBV)는 상기 3개 은행에 현금 배당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요청은 항상 다른 주주들에게 거부된 바 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저가 주택 부족 확대**

중고가 주택의 과잉공급과 반대로, 저가 주택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장기투자를 이끌어낼 경로 부족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을 원인으로 꼽았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최근 221 건의 공공주택 프로젝트가 지연 및 폐기되었다. 대도시에서 10 억동 내외의 저가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데, 45~50m² 수준의 소형 아파트 대다수는 15 억동 수준이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16~2020 년간 호치민 시의 신규 공급 중 22% 미만만이 저가형에 속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LS전선아시아, 3분기 실적 본격 반등

코로나 19로 실적 상승에 잠시 제동이 걸렸었던 LS전선아시아가 3분기 실적 반등을 통해 하반기 성장의 마중물을 이끌어냈다. LS전선아시아는 올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증가한 1459억원, 영업이익은 827% 증가한 51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3분기 실적 반등의 주요 원인은 베트남 시장의 전력 프로젝트 재가동으로 인한 배전(중·저압) 부문과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의 통신(광케이블·UTP) 부문의 수익성 회복으로 관측된다. 베트남 인프라 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후 인프라 시장의 본격 회복 이전에 전력 시장의 회복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More information: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30>)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